

건설동향브리핑¹⁾ - 건설 정책 및 경영 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 정책 동향

1.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방향 분석

- 건설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

건설동향브리핑 제472호(2014.8.4) 박용석 연구위원

■ 정부, 현재 경기가 부진하다는 인식하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의 방향 설정

현재 경기 회복이 주춤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세계 경제의 둔화와 경쟁국의 추격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수 부진의 심화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경제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기업의 수익성 저하, 고용·임금·소득의 둔화 등 경제 회복이 제약되고,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 균형'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자산시장의 부진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안전 투자 확충

평택-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2.6조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1조원)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호 관광단지(1.8조원)의 조성도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된다. BTL 민간 제안 허용 및 대상 시설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 될 전망이다. 모든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바탕으로 안전투자펀드 및 예산 등 안전 투자 자금의 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도 모색된

다. 모든 민간 시설, 공공기관 관리 시설, 국가 및 지자체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추진된다. 기업 등의 노후 안전 시설 교체 관련 투자 및 안전 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 집행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펀드 조성을 위한 지원 여력의 확충을 추진한다. 향후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해 RTL (Rehabilitate-Transfer-Lease), RTO (Rehabilitate-Transfer-Operate) 방식으로 보수·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과 현안

- '규제'에서 '진흥 및 지원' 중심으로 전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목표 -

건설동향브리핑 제473호(2014.8.11) 이영환 연구위원

■ 「건설기술관리법」 전면 개편의 배경

최근 국내 건설기술용역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칸막이식 업역 체계 기반의 국내 건설기술관리법 하에서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건설기술의 정책 방향을 이전의 규제 중심에서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분화되어 분절된 업무 영역과 건설기술인력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주간으로 발간하는 「건설동향브리핑」은 건설 경제·정책·경영 이슈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회지 [CEM Info] 섹션에서는 「건설동향브리핑」 최신호 일부를 요약하여 게재 합니다. 소개된 전문은 www.cerik.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현안과 전망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과제 수행이 필수적이다. 주요 쟁점과 과제로 △기술 등 급별 역량지수의 기준 점수에 대한 이해 당사 기관별 상이한 견해, △건설기술용역업자 관련 협·단체의 통·폐합에 대한 일부 갈등, △서비스 공급자 역량 제고, △새롭게 도입된 통합 실적 관리 시스템의 정상 궤도로의 진입, △기술인력 체계의 개편 내용을 반영한 건설기술자 DB의 보완 등을 열거할 수 있겠다. 해외건설에서 국내 기업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엔지니어링과 사업관리(PM, Project Management)임을 고려할 때, 「건설기술진흥법」으로의 개편은 필수적인 개선이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규제’에서 ‘진흥 및 지원’이라는 정책 변화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국내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호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현안에 대해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3. 2020년 건설시장, 유지보수 중심으로 재편

– 정부 정책 및 건설기업 경영 전략 전환 필요 –

건설동향브리핑 제470호(2014.7.21.)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책임연구원

■ 2020년 이후 유지보수 중심의 선진국형 시장으로 전환

국내건설시장은 2020년 이후 신축시장은 본격적으로 축소되고 주택 리모델링, 도심 재생, SOC 시설물의 유지보수/재개축 등과 관련한 유지보수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2020년 이후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신축시장이 쇠퇴 국면으로 본격 진입하는 반면, 유지보수시장은 점진적으로 성장국면에 진입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주거용 건설투자의 경우는 2020년 이후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이 축소되고, 이 대신 주택 리모델링, 도심 재생,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고급/첨단화 관련 재개축과 유지보수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SOC 시설 역시 스톱축적, 공공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신축 투자가 축소되고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한 재개축 투자 위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2020년에 약 11%가 되고, 2025년 이후에는 10%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은 202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이 선진국형 시장으로 본격 전환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현재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은 대부분 평균11%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 정부 정책과 건설기업 전략 전환 필요

향후 정부는 도심 재생, 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및 SOC 시설물의 질적 고도화 등 유지보수 투자 활성화 관련 정책적 기반 및 재원의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도심 재생, 주택 리모델링, SOC 시설물의 질적 고도화 등과 관련된 유지보수 투자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된다면, 2020년 이후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10%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건설기업은 신축 건설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유지보수 분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신기술, 마케팅,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시장 창출형 영업을 지향해야 한다. 선진 기업처럼 SOC 시설물의 운영 유지보수를 포함한 위탁 관리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의 임대관리/자산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관련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건설 경영 동향

1. 기능인력의 ‘현장 경험’이 건설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능 마스터 고용 사례’ 중심, 긍정적 효과 큰 것으로 밝혀져 –

건설동향브리핑 제468호(2014.7.7.) 심규범 연구위원

■ 건설 기능인력 ‘현장 경험’의 중요성 : 건설 생산에서 ‘지식 창조’의 원천 중 하나

암묵지(暗黙知, Tacit Knowledge)란 오랜 경험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체득한 지식이나 노하우로서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걸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을 말한다. 그에 비해 형식지(形式知, Explicit Knowledge)는 언어나 문자로 표현된 문서화 또는 데이터화된 지식을 말한다. 건설생산에서는 생산물의 특성인 각이성(各異性)과 생산과정의 특성인 옥외성(屋外性)으로 인해 암묵지인 건설기능인력의 ‘현장경험’은 더욱 중요하다. 각이성은 생산물이 모두 다르다는 뜻으로 동일한 기능이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달리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시공작업이 실외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의 옥외성은 동일한 기능이 온도 습도 풍속 등의 기후조건뿐만 아니라 자연에 노출된 자재의 상태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현장경험을 통해 터득할 수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는 원수

급자, 하수급자, 근로자 등 다수 생산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총괄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것 역시 각 주체들의 역할을 두루 수행하는 ‘현장경험’을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 모 일반건설업체 ‘기능 마스터’의 개념과 도입 배경 및 현황

모 일반건설업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기능 마스터란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의 시공지원 설계 및 시공방법 검토, 현장 훈련, 작업관리 등 실제 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건설업체 소속의 중간 기술직을 지칭한다. 기능 마스터의 평균 연령은 52.0세이고 현장 총경력은 26.7년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기능인력 출신의 고속련 인력이고 팀, 반장 또는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지녀 다양한 생산주체의 역할을 두루 수행한 ‘현장경험’ 보유자들이다. ‘이론+실기+관리+경력’ 등이 결합된 주체라는 점이 기능 마스터를 다른 주체와 차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이들이 발휘하는 복합적 능력의 원천이다. 2006년에 2명으로 시작한 이래 초기에는 중대하자 발생 공중 또는 하자 다발 공중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부터는 반복 하자 및 시공오류의 저감을 위해 인력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는 품질 고급화 및 아파트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경력 20~30년의 팀장급 40명을 상용화하였다. 2014년 5월 현재 고용된 기능 마스터는 총 218명이며 공중별로는 건설87명(39.9%), 기계56명(25.7%), 전기39명(17.9%), 토목 22명(10.1%) 등의 순이다.

2. 국내 건설기업 해외건설 사업 리스크관리 역량 현황 분석

- 국내 주요 대형 건설기업의 리스크관리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
 건설동향브리핑 제473호(2014.8.11.) 유위성 연구위원

■ 수주 및 수행 단계 리스크관리 역량 보강 필요

국내 대형 건설기업은 2013년에 해외 건설사업에서 약 2.85조원의 손실을 경험하면서 수주 확대와 함께 수익성 향상을 위한 경영 전략의 수립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 경쟁 사업 중심의 수주단계 리스크관리 활동에 편중되어 있다. 수주 사업의 특성 변화 및 기업 경쟁력의 향상으로 기술 경쟁 중심의 사업 수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수행단계에서의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기업의 경영 및 수주 전략이

다양해지고 사업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경쟁을 통해 목표 수익의 달성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가격 경쟁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리스크관리 체계는 계약 이후 목표 수익성의 확보 및 달성 가능성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리스크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수주 및 수행단계에서의 리스크관리역량을 점검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 과제

리스크관리조직 절차시스템의 수직 및 수평 통합이 요구된다.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사업까지 리스크관리의 조직, 절차, 시스템의 연속적 운영과 사업기획단계부터 계약이후 사업수행 및 완료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성되는 리스크 정보를 통합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은 리스크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수주 및 수행단계의 리스크 정보와 관리프로세스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리스크정보의 생애주기 추적을 위해 수주 및 수행단계에서 운영되는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일원화가 필요하지만 수행단계 리스크관리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리스크관리 역량은 프로젝트관리 체계와의 효율적인 통합과 공정 및 원가관리 역량이 개선될 때 향상되고 효율성도 증가할 것이다. 현실적인 리스크관리의 운영을 위한 기업의 내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에 대한 기업 내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경영자 및 실무자를 위한 문화 확산 프레임워크의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리스크관리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여 리스크관리 활동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3. 빅 데이터에 대한 건설기업의 인식 실태

- 30대 건설기업 실무자의 50%, “5년 내 빅 데이터 관리 체제 도입해야” -
 건설동향브리핑 제474호(2014.8.18.) 강상혁 연구위원

■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보다 많은 관심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시행한 ‘건설기업의 데이터 활용도 및 빅 데이터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소속 기업이 데이터 관리 정책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76%는 소속 기업의 데이터 관리 수준을 보통, 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데이터 관리 정책이나 시스템이 현업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데이터 관리가 부실한 가장 큰 이유는 '회사 내에 데이터 관리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이유로는 '데이터 관리 인력의 부족'(23%),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적용성 미흡'(12%) 등이 있었다. 응답자의 75%가 건설기업 내 데이터의 분석 활용 수준이 높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6%가 건설기업 내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 결정 문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건설기업 내에서는 대부분 일부 경험자의 직관과 경험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 빅 데이터의 개념을 IT 인프라 위주로 인식

설문 응답자들은 빅 데이터의 개념을 '데이터로부터 통찰을 얻어내는 과정'(31%), '대용량의 데이터 베이스'(29%), '거대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23%), '복잡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13%)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빅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빅 데이터를 IT 인프라(하드웨어)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빅 데이터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종합해보면 '크고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신속하게', '의미 있는' 정보나 통찰을 추출해내는 '방법 내지는 프로세스'로 요약할 수 있다.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방법 및 프로세스는 기존에도 존재해 왔으나, 최근 들어 그러한 데이터와 다루는 기술 차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빅 데이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빅 데이터 활용 분야로 '리스크 관리', '건설시장 분석' 등 꼽아

응답자의 36%는 기업 내에서 생산되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이메일, 워드, 한글, PDF 등의 업무 문서)를 빅 데이터 분석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에 비디오 및 이미지 데이터, 공간 및 지리적 데이터, 센서/장비/디바이스 데이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건설기업의 실무자들은 빅 데이터가 리스크 관리(30%), 건설시장 분석(26%), 원가 및 재무 관리(25%), 경영 전략(24%), 입찰/계약 관련 의사 결정(23%), 마케팅(23%)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